



# 밝고 안전한 한 해를기원하며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독자 여러분의 바라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안전인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담보상태에 있던 전국의 산업 재해율이 3년 만에 감소하였고,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재해율도 처음 0.3%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월간 『안전기술』은 지난 9년간 국내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안전전문지로 자리 잡았고, 우리 협회는 “VISION 2011”을 선포하고 달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 기관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협회와 같은 공익법인이 여러 안전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산업재해는 예방되고, 재해율은 감소되며, 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협회가 “VISION 2011”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인증·검사 사업”, “원격교육훈련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의 진출로 미래 성장엔진을 마련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서해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는 데만도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한순간 실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 준 사고였습니다.

금년은 쥐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쥐는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하는 영물로 “안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지난 아픔을 교훈삼아 올해에도 우리 안전인들은 늘 해왔던 것처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산업현장에서 우리 안전인들이 흘린 땀방울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 협회는 밝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일천**